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13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82.80원 (+0.30원)

KOSPI

5,858.87 (+80.86, +1.40%)

KOSDAQ

1,093.63(+17.63, +1.64%)

국고채 10년 금리

3,686(+0.026%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화수분전략	시장은 압축된다. 업종과 종목도 압축하자 [이재만]
New K-ETF	K반도체TOP2+, K반도체TOP2&단기국채 [박승진]
김경환의 China Weekly	4연임과 중국 주식시장 부양 [김경환]
Econ Snapshot	미국 3월 CPI: 전쟁 발 물가 영향은 단기에 그칠 듯 [전규연]
하나채권	[4월 금통위] 선제적 인상보다 동결 [박준우]
신흥국 전략	베트남, FTSE 이머징 승격 확정 [김근아]

기업분석

KT	1Q 프리뷰 – 비용 증가로 실적 부진할 전망 [김홍식]
세아베스틸지주	기존 사업 정상화 진행 중 [박성봉]
동국제강	1Q26부터 영업실적 개선 중 [박성봉]
KT&G	1Q26 Pre: 시장 기대 소폭 상회 예상 [심은주]
한미약품	1Q26 Pre: 컨센서스 하회해도 이벤트를 기대 중 [김선아]
한국항공우주	1Q26 프리뷰: 기대치 하회. 그래도 연간 추정치 변동없음 [채운샘]

산업분석

호텔	고유가만 해결되면 가파른 반등 전망 [이기훈]
유틸리티	2월 전력통계월보: 53개월만에 판매단가 하락 [유재선]
Weekly	
은행	시중금리 하락전환했지만 환율도 큰폭 하락 [최정욱]
철강금속	글로벌 철강가격 강세 기조 유지 전망 [박성봉]
반도체 및 소부장	1분기 가격 강세 확인. 2분기도 상향 가능성 농후 [김록호]
에너지/화학	단기 불확실성이 중장기 반사수혜보다 크다 [윤재성]
음식료/담배	1분기 동향/ 2분기 전망 → 대형주가 좋아 보인다 [심은주]
2차전지	배터리 비중 확대 필요 [김현수]
디지털자산	시장 상승에 동반. 아시아 제도화 확인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Tech&Stock Weekly	빅테크-원전 연계 지속과 핵심광물로서 중요성 증가한 우라늄 [김재임, 김시현]
Hana China Weekly	상위 AI 모델, 성능/사용량 기반으로 수익화 시작 [백승혜]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삼성E&A, 삼성증권, 동국제강, KSS해운, 리노공업, 대성하이텍, 우리넷

하나증권

2026년 4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화수분전략

시장은 압축된다. 업종과 종목도 압축하자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S&P500지수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8%로 기준금리 보다 30bp 정도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아직은 1회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성장 둔화로 인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시중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틀란타 연은 GDPNow는 1.3%까지 하락했다(2월 미국과 이란 전쟁 직전 3.0%). 3월 미국 CPI(MoM 0.9%)와 근원 CPI(MoM 0.2%)를 보면 에너지 제외 시 아직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고, 4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47.6p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S&P500지수 내 과거 미국 2년물 국채금리 하락 시 PER 상승이 가능한 업종 중에서도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하드웨어, 자본재 중심으로 압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과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달러인덱스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이 참전한 전쟁이 장기화(베트남전과 이라크전) 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 달러 약세를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8.6%까지 하락해 2020년 이후 최저, SK하이닉스는 52.8%로 2024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2026년 전망치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98조원(27년 361조원),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73%(27년 71%)로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도 1~2위 수준이다. 한편 달러 약세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했다는 점도 수급 개선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시중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높은 업종과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국내 증시에서 달러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를 기반으로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은 기계, 하드웨어, 조선, 방산, 화학이다(외국인 순매수 강도 순).

업종별로 보면, 주가 상승 연차에 따라 중요하게 보는 이익 변수가 달라진다. 기계, 조선, 방산은 4년 연속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5년까지 주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계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상승 여부, 조선(방산)은 매출과 영업이익률 상승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두산에너빌리티와 HD현대일렉트릭(기계), 삼성중공업과 HD현대마린솔루션(조선), 현대로템과 LIG넥스원(방산)이 유리해 보인다.

IT하드웨어와 화학은 2년 연속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3년까지 주가 상승을 이어가려면 IT하드웨어는 순이익 증가율과 ROE 상승 여부, 화학은 ROE 상승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대덕전자와 파크시스템스(하드웨어), OCI홀딩스와 대한유화(화학)가 여기에 해당한다.

2026년 4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K반도체TOP2+, K반도체TOP2&단기국채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4/14)

- 1Q K반도체 TOP2+, 1Q K반도체TOP2 채권혼합50

1Q K반도체 TOP2+: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메가사이클 국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7.5%의 비중으로 편입하고, 주요 8개 기업들을 함께 편입하여 총 10개 종목의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ETF가 되겠다. 국내 반도체 섹터는 AI 반도체와 HBM 중심의 수요 증가로 촉발된 글로벌 수급 불균형 국면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영역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전자장비 및 기기 산업 내 기업들 중 반도체 관련 매출이 존재하는 종목들을 유니버스로 선정한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최상위 2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 나머지 8개 종목의 경우,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에 따라 개별 편입 비중이 할당된다.

상장일(4/14) 기준의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원익IPS, 이오테크닉스, 대덕전자, DB하이텍, HPSP가 편입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의 마지막 영업일 기준 2영업일 전에 종목 선정, 선정 이후 3영업일 후에 리밸런싱)에 걸쳐 진행한다. 개별 종목의 비중이 5영업일 연속으로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27.5%의 Cap Rate 기준으로 수시 재조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0.2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1Q K반도체TOP2 채권혼합50: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들과 단기 국고채를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패시브 ETF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25%의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50% 비중은 잔존만기 6개월 이하의 단기 국고채와 통안채로 포지션을 구축한다.

한국 증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도주 2개 종목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안전자산인 국고채 포프톨리오를 50%씩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하는 형태이다. 국고채 포지션의 경우 잔존만기가 1개월~6개월 이하인 국고채와 통안채 8개 종목을 편입한다. 6개월 이하의 단기물로 구성되는 만큼 금리 변화에 의한 가격 변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채권 포지션이 5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며,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퇴직연금 계좌에 100% 비중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 ETF 종목이 되겠다.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비중(25%/25%/50% 기준)은 매일 조정하며, 주식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의 마지막 영업일의 3영업일 장 종료 후), 채권 포트폴리오는 매월 첫 영업일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총 보수는 0.01%가 적용된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김경환의 China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4.13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4연임과 중국 주식시장 부양

- **4연임을 위한 주식시장 부양과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정책 드라이브 :** 시진핑 집권 3기의 잔여 임기(당서기 기준 2022년 10월~2027년 10월)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5차 5개년 계획의 초기 정책 드라이브와 주식시장 부양은 4연임을 위한 당위성 강화와 민심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중국 증시는 역대 5개년 계획의 전환기에 1-2년 단위의 강세장을 보인바 있으나 금번 사이클의 경우 단순 정책-경기 진작 혹은 직접금융 육성 등의 목적을 압도한다. 금번 사이클은 ①정치적인 목적, ②성장 모델 전환과 내수 부양, ③가계 탈부동산과 자산관리 수요, ④주식시장 활용법의 구조적인 변화(정부/기관/육성), ⑤기술자립 및 공급망 고도화 성과 투영 등에 따라 역대 가장 복합적인 당위성을 구축한 '구조적인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 시장 환경 측면에서도 5년만에 리플레이션과 기업 이익 회복이 가시화되는 2027년까지 정책과 투자심리 회복이 반영될 수 있다.
- 실제로 3기 지도부의 주식시장 활용법은 2024년 4/4분기 이후 구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입증하고 있다. 2025년 전방위 증시 부양책을 통한 유동성 함정 및 디플레이션 탈출 시도(통화량/물가 선행), 가계 측면에서 ETF/신용/사모펀드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 유통시장 관점에서 장기자금 투자 촉진(보험사/연기금)과 국유기업 주주환원 강화, 발행시장 관점에서 홍콩(H주/회사채)과 본토 과창판 등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한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 과거 대비 복합적이며 구체적이다.
- **15차 5개년 계획중 내수 부양 목표 측면의 주식시장 부양 :** 2026년 전인대에서 통과된 15차 5개년 계획 초안(강요문)을 보면 '대대적인 소비 촉진'을 최우선 임무로 제시하고, '가계 소비율 상향' 및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최초로 제시했으나 펜데믹 이후 내수 침체와 부동산 후유증을 감안하면 정책 난이도가 여전히 높다. 또한, 2025년 기준 중국 가계 재산성 소득과 가처분 소득 배율은 10년래 최저치까지 하락했고, 가계 자산 소득의 비율은 8%로 미국(24%)은 물론 주요국중 최하위권에 위치한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단순 소비 증가율 촉진이 아닌 중장기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용 안정 정책과 함께 주식시장 부양이 소비 촉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장기금리 하락과 함께 전사회적인 자산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15차 5개년 계획 기간내 주식시장 부양과 부동산 편입 자금의 이동을 계속 유도할 전망한다. 이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중장기 정책 추세와 동일하며 중국의 경우 대외 개방 효과가 평이한 가운데 로컬 자금의 자산 재배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진핑 4기 출범을 앞두고 2027년 하반기까지 ①상장기업 퀄리티 관리와 투자자 신뢰도 개선 병행 정책, ②주식 투자 규제 완화와 홍콩 투자 활성화 조치(개인 투자자/위안화 투자 등), ③장기 자금(보험/연기금/투자공사)의 주식 편입 비율 상향 법제화, ④정밀하게 통제된 IPO 확장과 정부 자금 투자, ⑤위안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 신뢰 제고 등이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 **주식시장 부양 관점에서 보는 15차 5개년 계획과 초기 정책 드라이브** : 최근 5년간 중화권 증시의 시가총액 구조 변화(테크-첨단제조-소부장-서비스 비중 상승)를 감안할 때 5개년 계획 기간 1-2년차의 정책 드라이브는 주가 리레이팅에 우호적이다. 금번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향후 5년간 성장 모델 전환의 안정기 돌입과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응용 확산을 선언하고, 14차 5개년 계획 대비 현대화 산업 시스템(2위), 디지털 중국(4위), 인구 발전과 민생 보장, 대외 개방과 지역 경제 발전 순위를 상향했다. 특히,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에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을 최우선 순위로 격상하고 첨단 제조업을 성장-안보 강화의 근간으로 제시했다. 1-2년차 정책 드라이브는 ①전통 산업 관련 반내권(소모적가격 경쟁 억제)과 에너지 전략(탄소저감/전력망), ②신흥 산업(반도체/항공우주/AI응용/바이오/저공경제) 관련 기술자립 지원, ③미래 산업(로봇/핵융합/BCI/양자) 관련 국가 프로젝트 투자 확대 및 자본시장 연계 지원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4연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15차 계획의 산업 정책은 14차 5개년의 '혁신-생산성-추격' 전략에서 '선도-융합-생태계' 구축 하에 상장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고도화 성과 도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예상된다.

Econ Snapshot

Economy | 2026.4.13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미국 3월 CPI: 전쟁 발 물가 영향은 단기에 그칠 듯

미국 3월 CPI Review: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 안정적인 근원 물가

- 미국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9%, 전년비 3.3%로 예상에 대체로 부합(컨센서스 전월비 0.9%, 전년비 3.4%)
-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 식료품 제외)는 전월비 0.2%, 전년비 2.7%로 예상치 하회(컨센서스 전월비 0.2%, 전년비 2.7%)
- 3월 소비자물가는 예상대로 전쟁 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주요. 휘발유 가격이 전월비 21.2% 오르며 에너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10.9%). 미국 노동부는 휘발유 가격 급등이 전월비 물가 상승분의 약 3/4을 차지했다고 설명
- 항공 요금도 전월비 2.7% 오르며 운송서비스 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나 유가 상승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전가되는 중
- 반면 소비자물가 내 가중치가 높은 주거비는 전월비 0.3%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처방약 가격 하락(-1.5%) 영향으로 의료비가 전월비 -0.2% 하락
-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의류(1.0%) 등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고차 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0.4%)하고 신차 가격도 전월비 0.1% 상승하는 데 그쳐 큰 영향은 제한되는 모습. 관세는 미국 수입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2차 파급효과 속도가 느리고 수요측 물가 압력이 낮다면 물가 상승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

-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어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상승 부담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다만 휴전 기간 내(~4/21)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유가가 안정된다면 전쟁 발 미국 소비자물가 영향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2차 파급효과 우려가 다소 완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소비자심리가 약화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수요측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소지. 미국 4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는 47.6P로 전쟁 이전(2월 56.6P)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 단기(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월 3.8% → 4월 4.8%로 급등했으나, 장기(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월 3.2% → 4월 3.4%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며 기대 인플레이션 고정
- 2022년 인플레이션 급등 당시 미국 노동시장은 노동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던 시기였고, 현재는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도 정체된 상황
-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약 3개월 정도 영향을 미친 후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올해 9월 한 차례(25bp) 인하 전망을 유지. 전쟁 전개 방향에 불확실성이 높으며, 전쟁 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지라도 이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2026년 4월 10일 | Global Macro Strategy

하나채권

[4월 금통위] 선제적 인상보다 동결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성장률 하향, 물가 상향 시사. 이창용 총재와 신현송 후보자 모두 선제적 인상보다 관망을 선호.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
- **물가 리스크 이후에 성장 리스크.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 한번 더 견딘 이후 하락이 재개될 전망 3년 금리: 4월 3.5%, 2분기 3.4%, 4분기 3.1% 전망**

리뷰: 유가 충격에 대응해 선제적 인상보다는 동결을 선호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2.50%)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작년 5월 마지막 인하 이후 7회 연속이다. 예상대로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관망 기조를 시사했다. 향후 정책 대응은 이란 사태 심화 여부와 인플레이션에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통화정책방향문은 중동사태로 '물가의 상방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확대'로 요약된다.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2.0%)을 하회하고 인플레이션은 2월 전망(2.2%)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낮게 유지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2월의 '성장세 회복 지원' 문구를 삭제하고, 중동전쟁 등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등을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통화정책은 공급 충격이 (1) 일시적일 경우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해 대응하지 않고, (2) 장기화되어 기대 인플레이션도 불안해질 경우에는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러-우 사태와 비교하면, 수요가 약하고 부문간 격차도 커 성장 충격이 클 수 있고, 한국은 중동 의존도가 높기에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그 당시보다 더 강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망: 연내 동결 전망. 금리는 물가 리스크를 견딘 이후에 하락 재개

[기준금리] 2026년 한국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1) 유가가 고점을 지났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즉, 한은이 우려하는 2차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2)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이란 사태로 성장/물가 충격이 모두 크다. 전망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중앙은행의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 또한 (3)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는 인플레이션 파도가 지나간 이후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2022년과 같이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긴축 전환의 허들이 높다. 마지막으로 (4) 부동산 가격 기대 하락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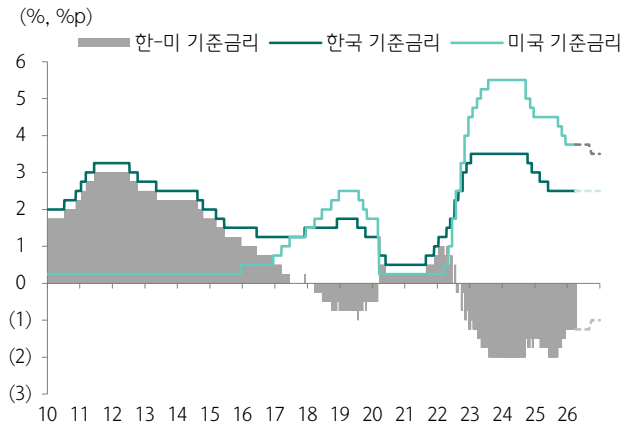
한편 신현송 후보자 (4월 15일 청문회 이후 21일 취임 예정) 역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것

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과거 발언을 통해 유가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 통화정책 대응을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환율 수준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창용 총재의 기조를 이어 금리 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국채금리] 국채금리는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연내 1~2회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향후 1개월 동안은 금리 반등 리스크가 남아있으며,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유가 충격이 '물가 상승과 성장률 둔화*'로 귀결되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2~3분기에 가장 크고, 성장률 리스크는 그 다음에 나타난다. 미국-이란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4월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면 긴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3년물 금리의 연간 경로를 4~5월 3.5%, 2분기 3.4%, 4분기 3.1%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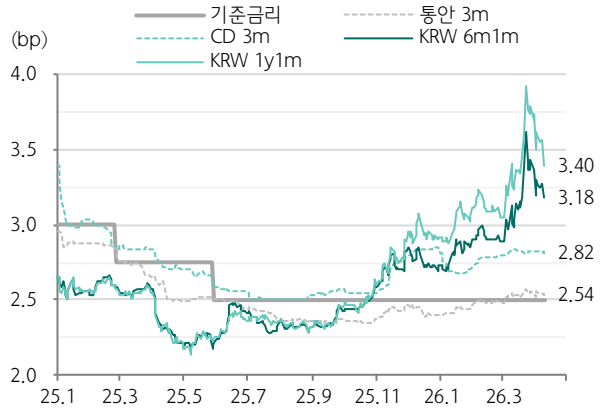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을 2월 2.0%에서 유가 충격 (-0.4%), 추경 효과 (+0.2%) 등을 반영해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2%대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도표 1. 한미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 미국 9월 인하, 한국 동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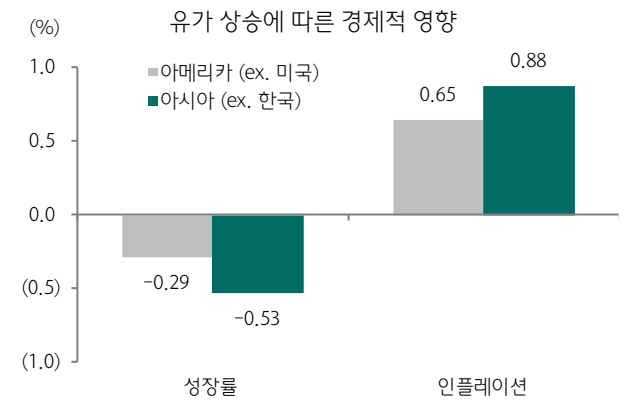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OECD

도표 2. 한국 기준금리 및 단기금리 추이
: 시장은 연내 1~2회 인상을 반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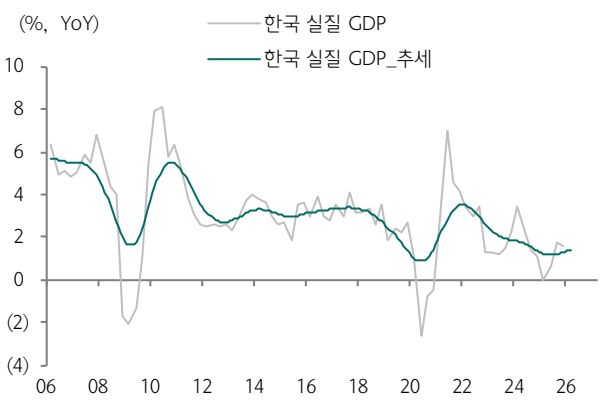
주: 4월 9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3. [경제] 유가 상승의 경제적 영향. 아시아 지역에 보다 큰 충격.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더 큼



주: Brent 고점을 $135로 가정. 1년 후 영향 기준
자료: OECD

도표 4. [경제] 성장률은 반등 중이나 추세는 회복 초입. 성장 회복 추세로 유가 충격에도 침체 리스크는 제한. 단, 수요 측 인플레 압력도 미약



자료: 한국은행, 하나증권

2026년 4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베트남, FTSE 이머징 승격 확정

베트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1)중장기 수급 여건 개선 기대, 2)MSCI로 가는 첫 관문 통과

FTSE 러셀이 베트남 증시의 Frontier Market에서 Secondary Emerging Market으로의 승격을 최종 확정했다. 2018년 이머징 마켓 관찰대상국에 편입된 이후 약 8년 만에 거둔 성과다. FTSE 글로벌 지수 내 베트남 증시 편입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작되며, 편입에 따른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에 걸쳐 4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9월 10%를 먼저 반영한 뒤, 2027년 3월 20%, 6월 35%, 9월 35%를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이번 승격 배경으로 글로벌 브로커 접근성 개선, 외국인 사전 예치 의무(Pre-funding) 폐지,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최근 베트남 당국의 시장 인프라 개선 노력을 제시했다.

FTSE 러셀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FTSE Global All Cap Index 편입 요건을 충족한 베트남 기업 32개로 구성된 잠정 편입 리스트도 함께 발표했다. 대표적인 대형주로는 철강 기업 호아팟그룹(HPG), 4대 국영상업은행 중 하나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C), 디벨로퍼 빈홈즈(VHM)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형주의 경우에는 F&B 기업인 마산그룹(MSN), IT·통신 기업 FPT, 유제품 시장 점유율 1위인 비나밀크(VNM) 등이 포함됐다. 실제 최종 편입 종목은 2026년 8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승격으로 현지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및 액티브 자금 유입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증시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FTSE Global All Cap 지수 내 예상 비중은 0.037%, FTSE Emerging All Cap 지수 내 예상 비중은 0.35%로 절대 비중 자체가 크지 않고, 실제 편입도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미국·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 첫날부터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론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유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당분간 유가와 환율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펀더멘털 우려와 환율 불안은 외국인 자금 유입 속도를 늦출 수 있고, FTSE 승격 기대의 단기 반영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FTSE 승격은 곧바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단기 모멘텀이라기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 이후 베트남 증시의 수급 정상화와 재평가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구조적 전환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번 FTSE 승격은 보다 큰 규모의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가능한 MSCI 승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MSCI는 FTSE보다 요구 기준이 더 까다로운 만큼, 실제 승격까지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소유 한도(FOL) 완화, 영문 공시 확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번 FTSE 승격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MSCI 승격 논의도 한층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판단이다.

2026년 04월 1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T (030200)

1Q 프리뷰 – 비용 증가로 실적 부진할 전망

BUY (유지)

목표주가(12M)	76,000원
현재주가(4.10)	62,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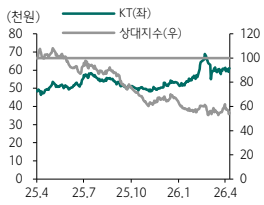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58.87
52주 최고/최저(원)	68,900/46,350
시가총액(십억원)	15,650.5
시가총액비중(%)	0.32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32.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0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1 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7,852.4	28,366.3
영업이익(십억원)	2,164.7	2,341.5
순이익(십억원)	1,569.1	1,686.5
EPS(원)	5,879	6,341
BPS(원)	75,165	78,40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6,431.2	28,244.2	28,910.4	29,627.7
영업이익	809.5	2,469.1	2,040.8	2,114.5
세전이익	584.7	2,418.1	2,059.4	2,159.6
순이익	470.3	1,731.0	1,468.9	1,541.5
EPS	1,850	6,869	5,828	6,116
증감율	(52.41)	271.30	(15.16)	4.94
PER	23.70	7.66	10.47	9.97
PBR	0.67	0.73	0.81	0.77
EV/EBITDA	4.31	3.63	3.88	3.64
ROE	2.85	10.22	8.12	8.13
BPS	65,177	71,886	75,276	78,764
DPS	2,000	2,400	2,600	2,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12개월 목표가 76,000원 유지, 단기 업종 주가 연동 예상

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76,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이동전화 서비스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감가상각비/마케팅비용 등 주요 영업비용 정체로 2026년에도 본사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2) PBR과 ROE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 주주이익환원 증대 노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3) PER과 PBR로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업종 주가가 5G SA 도입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양상인데 단기 업종 주가와 연동할 가능성이 커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단기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 4,879억원으로 컨센서스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 기록 예상

2026년 1분기 KT 실적은 부진할 전망이다. 연결 영업이익이 4,879억원(-29% YoY, +115% QoQ)으로 컨센서스(연결 영업이익 5,455억원)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약금 면제 및 고객 감사 패키지 제공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매출액 성장률 저하, 위약금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자회사 지급수수료 증가와 더불어 통신 3사간 경쟁 과열로 마케팅비용 역시 전년동기비 증가가 예상된다. 1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은 주요 비용 측면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대전 인재원 분양 수익 발생이 예상되나 2025년 1분기 아파트 분양 이익이 1,4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분양 이익은 전년동기비 1천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투자가 입장에선 그나마 해킹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이동전화매출액이 증가하고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정체가 예상된다는 점이 위안거리가 될 전망이다.

5G SA 기대감 확산 중, 통신업종 주가 상승에 따른 키 맞추기 식 상승 전망

KT의 경우 단기적으로 특별한 호재는 보이지 않는다.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며 1분기 DPS 역시 전년 수준인 600원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 흐름을 감안하면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주가는 단기 반등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 주가가 기대배당수익률 4.1%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5G SA 도입 기대감이 올라올 것임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SKT대비 상대적 주가 상승 폭이 낮았던 상황이라고 보면 키 맞추기식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2026년 04월 13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세아베스틸지주 (001430)

기존 사업 정상화 진행 중

BUY (유지)

목표주가(12M)	89,000원
현재주가(4.10)	63,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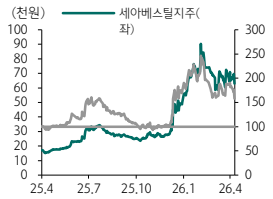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58.87
52주 최고/최저(원)	90,300/15,640
시가총액(십억원)	2,262.9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35,862.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48.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4.7
외국인지분율(%)	7.63
주요주주 지분율(%)	
세아홀딩스 외 3 인	62.66
국민연금공단	8.4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755.6	4,070.3
영업이익(십억원)	142.6	210.4
순이익(십억원)	81.7	135.2
EPS(원)	2,310	3,820
BPS(원)	55,321	57,39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636.1	3,651.6	3,876.3	4,052.9
영업이익	52.3	98.4	138.2	185.1
세전이익	23.2	87.8	102.3	147.5
순이익	20.2	56.2	74.2	110.1
EPS	564	1,567	2,068	3,070
증감율	(84.23)	177.84	31.97	48.45
PER	35.04	32.04	33.61	22.64
PBR	0.37	0.93	1.26	1.22
EV/EBITDA	9.15	12.72	13.41	11.21
ROE	1.04	2.89	3.78	5.47
BPS	54,089	54,192	55,185	57,055
DPS	1,200	1,200	1,200	1,2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Q26 판매 증가와 스프레드 확대로 영업실적 개선

2026년 1분기 세아베스틸지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308억원(YoY +3.4%, QoQ +8.1%)과 252억원(YoY +39.4%, QoQ +185.0%)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282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판매는 40.4만톤(YoY +5.6%, QoQ +9.8%)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철스크랩 가격이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동차용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제품 Mix가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ASP도 2만원/톤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스프레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해 12월 설비 보수 완료 이후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10.1만톤(YoY -1.9%, QoQ +7.3%)의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니켈가격 상승에 대응해 2월 스테인리스(STS) 제품 가격을 톤당 30만원 인상하면서 마찬가지로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에도 영업실적 개선 지속될 것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판매가 43.2만톤(YoY +0.7%, QoQ +6.9%)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아창원특수강 또한 판매량 증가(11.9만톤: YoY +3.0%, QoQ +17.8%)가 기대된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4월 전체 특수강 제품 대상으로 톤당 3만원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세아창원특수강 또한 일부 제품 가격을 톤당 20만원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반면, 최근 주원료인 고철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양사 모두 2분기 스프레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세아베스틸지주의 2분기 영업이익은 446억원(YoY +0.3%, QoQ +76.8%)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89,000원 유지

세아베스틸지주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89,000원을 유지한다. 올해는 기존 주력 사업인 특수강 관련 자회사들의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산 특수강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및 잠정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4분기부터 수입산 감소에 따른 추가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중으로 CASK(사용후핵연료처리장치)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고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미국내 특수합금 공장과 사우디 무계목강관 공장의 사업 본격화로 세아베스틸지주의 외형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04월 13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동국제강 (460860)

1Q26부터 영업실적 개선 중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원
현재주가(4.10)	10,4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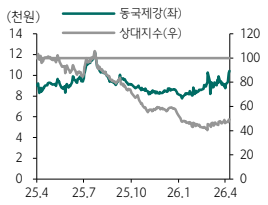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58.87
52주 최고/최저(원)	12,170/7,770
시가총액(십억원)	516.4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49,60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88.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6
외국인지분율(%)	25.09
주요주주 지분율(%)	
동국홀딩스 외 8 인	33.70
JFE STEEL INTERNATIONAL EUROPE B.V.	8.7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348.0	3,490.4
영업이익(십억원)	87.8	111.2
순이익(십억원)	27.9	47.6
EPS(원)	562	960
BPS(원)	35,203	35,78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527.5	3,203.4	3,540.9	3,708.8
영업이익	102.5	59.4	86.1	133.1
세전이익	44.9	10.3	37.3	72.8
순이익	34.8	8.2	28.9	57.1
EPS	702	166	583	1,151
증감율	(85.64)	(76.35)	251.20	97.43
PER	11.40	49.64	17.58	8.91
PBR	0.23	0.22	0.27	0.26
EV/EBITDA	4.08	9.37	8.61	7.01
ROE	2.04	0.46	1.53	3.00
BPS	34,323	38,002	38,141	38,692
DPS	600	400	600	6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Q26 판매 증가와 비용 감소로 수익성 대폭 개선 예상

2026년 1분기 동국제강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366억원(YoY +15.3%, QoQ +2.7%)과 200억원(YoY +370.5%, QoQ +2,688.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 공격적인 영업전략에 힘입어 봉형강 판매량이 66.0만톤(YoY +19.8%, QoQ +11.3%)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2) 중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로 후판 판매량 또한 24.9만톤(YoY +21.8%, QoQ +5.3%)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3) 전기로 원재료 투입단가가 전분기대비 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철근을 포함한 봉형강 ASP는 전분기대비 1.0% 상승에 그치면서 봉형강 스프레드는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4) 후판의 경우 압연 원재료 가격이 전분기대비 1% 상승한 반면, ASP가 3%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5)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와 제한적인 보수 비용 발생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분기 봉형강은 양호, 후판은 수익성 다소 악화 전망

최근 국내 제강사들의 철근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2분기는 성수기 효과가 더해져 봉형강 판매는 70.4만톤(YoY +2.2%, QoQ +6.7%)을 기록할 전망이다. 후판 또한 수입산 물량 감소와 성수기 진입 영향으로 25.2만톤(YoY +7.7%, QoQ +1.4%)의 판매가 예상된다. 현대제철을 포함한 주요 철근 제강사들의 적극적인 감산, 국내 출하 제한 및 수출 확대 조치로 인해 철근 유통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최근 국내 고철 가격은 횡보하고 있어 2분기 전기로 부문의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후판의 경우 국내 업체들의 가격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1분기 중반 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2분기 원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스프레드 축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1분기대비 정비비 증가 전망까지 고려할때, 동국제강의 2분기 영업이익은 186억원(YoY -37.7%, QoQ -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4,000원 유지

동국제강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4,000원을 유지한다. 올해 영업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중국산 후판 수입 규제에 따른 후판의 공격적인 판매 전략과 수출 확대로 인한 철근 내수시장 회복으로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가는 PBR 0.27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2026년 4월 13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KT&G (033780)

1Q26 Pre: 시장 기대 소폭 상회 예상

BUY (유지)

목표주가(12M)	180,000원
현재주가(4.10)	164,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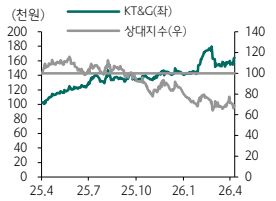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58.87
52주 최고/최저(원)	179,700/104,900
시가총액(십억원)	18,841.4
시가총액비중(%)	0.39
발행주식수(천주)	114,676.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45.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4.6
외국인지분율(%)	44.79
주요주주 지분율(%)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LLC	8.53
중소기업은행	8.2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812.1	7,168.5
영업이익(십억원)	1,472.8	1,599.7
순이익(십억원)	1,207.7	1,295.5
EPS(원)	10,450	11,318
BPS(원)	93,455	98,52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908.8	6,579.7	6,888.9	7,095.6
영업이익	1,188.8	1,343.7	1,471.9	1,546.8
세전이익	1,565.8	1,455.3	1,560.9	1,632.9
순이익	1,165.7	1,090.1	1,144.6	1,205.8
EPS	8,975	8,973	9,949	10,515
증감율	35.68	(0.02)	10.88	5.69
PER	11.93	15.84	16.51	15.63
PBR	1.31	1.66	1.77	1.68
EV/EBITDA	9.17	10.62	10.89	10.25
ROE	12.66	11.77	12.00	11.96
BPS	81,920	85,736	92,753	97,655
DPS	5,400	6,000	6,200	6,4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Q26 Pre: 본업 호조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1조 6,548억원(YoY 11.0%), 3,482억원(YoY 21.9%)으로 추정한다. KGC 제외한 단독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9,999억원(YoY 9.0%), 2,564억원(YoY 28.9%)으로 예상한다. 본업 호조 기인해 시장 기대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담배가 여전히 YoY 두 자리 수 고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궐련 MS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호적인 환율 및 전년 일회성 비용(희망퇴직 등) 기인해 베이스가 낮은 점도 유의미한 손익 증가의 원인이다.

① 1분기 국내 궐련 총수요는 YoY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KT&G 점유율은 YoY 40bp 상승한 68.8%로 예상된다. ② 국내 NGP 매출은 YoY 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NGP 침투는 여전히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③ 수출+해외법인 합산 매출은 YoY 22.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유라시아/아프리카 등에서 수량이 견조한 가운데, ASP도 YoY high single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 향 수출도 1분기까지는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PM 향 NGP 매출도 전년 기저로 YoY 유의미한 증가가 예상된다. 2H25와 유사한 분기 1천억원 내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④ 인삼공사는 국내 설날 선물세트 효과가 반영되면서 매출 및 이익 모두 YoY 개선될 전망이다.

2026년 가이던스 시현 가시성 높아 보여

사측은 지난 4Q25 실적 발표를 통해, 2026년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을 각각 YoY 3~5%, 6~8%로 제시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예상해보면, 손익 10% 내외 증가가 가능해 보인다. ① 우호적인 환율, ② 전년 NGP 기저(베트남 공급망 이슈), ③ 인삼공사의 수익성 개선세가 긍정적이다. 하나증권은 올해 연결 손익이 YoY 9.5% 증가한 1.47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범적 주주환원

사측은 총주주환원율 목표를 작년 109.8%→ 올해 '100%+α'로 제시했다. 지난 3월 기보유 자사주(약 9.5%) 소각을 발표한 가운데, 신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약 3천억원)도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가배당수익률을 고려한 주당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도 주당배당금 상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4월 1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한미약품 (128940)

1Q26 Pre: 컨센서스 하회해도 이벤트를 기대 중

BUY (유지)

목표주가(12M)	640,000원
현재주가(4.10)	5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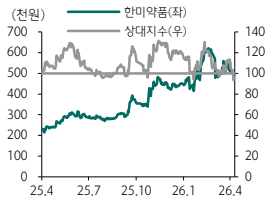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58.87
52주 최고/최저(원)	626,000/234,500
시가총액(십억원)	6,405.5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12,811.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6.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9.9
외국인지분율(%)	14.22
주요주주 지분율(%)	
한미사이언스 외 4 인	50.09
국민연금공단	10.9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675.8	1,838.4
영업이익(십억원)	279.8	322.0
순이익(십억원)	209.6	249.8
EPS(원)	14,991	17,819
BPS(원)	112,461	129,85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95.5	1,547.5	1,704.5	2,149.5
영업이익	216.2	257.8	277.8	427.3
세전이익	171.3	213.5	283.0	441.0
순이익	121.3	169.6	214.9	334.8
EPS	9,470	13,235	16,771	26,135
증감율	(17.04)	39.76	26.72	55.83
PER	29.62	34.15	29.81	19.13
PBR	3.19	4.48	4.32	3.57
EV/EBITDA	12.93	17.38	17.72	12.42
ROE	11.89	14.53	15.98	21.01
BPS	88,067	100,935	115,726	139,880
DPS	1,250	2,000	2,000	2,00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임상 시료 매출 부재와 계절 영향으로 컨센서스 하회할 전망

1Q26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3,908억원(YoY-0.0%, 컨센 4,139억원), 영업이익 585억원(YoY-0.8%, OPM 15.0%, 컨센 680억원)로, 매출(-5.6%)과 이익(-14.0%)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2상 임상이 종료됨에 따라 임상 시료 매출이 부재, 롤베돈의 미국 유통파트너사 변경으로 인한 라벨 교체, 국내 및 중국의 인플루엔자 및 감기 유행이 빠르게 종료됨에 따라 당분기 계절성 품목의 매출이 부진한 영향이다. **[한미약품 별도]** 임상 시료 매출이 부재한 중에 로수젯을 제외한 주요 제품(아모잘탄, 에소메졸 등)의 매출 성장도 둔화된 듯 보이나, 신규 코프로모션 품목(에피스/Boehringer Ingelheim /Ferring/Teva)의 매출이 성장 중이다. **[북경한미]** 계절성 품목 매출이 부진한 영향이 있었으나, 기저효과, 위안화 환율 증가(YoY+6%), 집중구매제도 영향이 적은 품목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YoY 성장세를 유지(YoY+20.2%)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밀화학]** 기존의 API 생산에서 CDMO로 매출 비중을 조절하며 이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한 일환으로, 당분기에도 CDMO 신규 수주를 유치하여 뚜렷한 체질 개선을 보여주는 중이다(OP QoQ 흑전).

'26년 가이던스 유지, 연내 L/O 1건 이상 목표도 유지

'26년 매출액 10% 이상 성장, 이익률 15% 이상 달성 (R&D 투자: 매출 대비 10% 중반대 유지)한다는 가이던스는 아직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제품의 성장이 부진하고, 종료된 글로벌 임상은 스케줄 상 연내 3상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산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4Q26)와 코프로모션 품목 매출이 가이던스 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연내 1건 이상의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가이던스가 달성되면, 매출 및 이익률 목표도 가뿐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연결 '26년]의 기술이전 기여도를 배제하고 추정한 실적은 매출 1조7,045억원(YoY+10.1%), 영업이익 2,778억원(YoY+7.8%, OPM+16.3%)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40,000원 유지

비만 신약과 코프로모션 품목들의 매출이 자리 잡는 '27년 EBITDA를 WACC 8.5%로 현가화하여, 영업가치에 목표 EV/EBITDA 14.5배(4/10일 종가 기준 한미약품 EV/EBITDA의 20% 할인), 삼중작용 비만체료제와 MASH 치료제의 비영업가치 1조9,373억원을 적용했다. 최근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현행 53.55%에서 최대 45%로 인하한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매출 대비 R&D 투자비율 7% 중반을 유지해 온 혁신형 제약사로서 단계적으로 할인하여 '32년에 이르러서야 45%가 적용되고, 신약과 L/O에 따른 매출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제약사 중 단기적인 영향이 적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당분기 일시적으로 컨센 하회하더라도, 상반기 이벤트인 MASH 치료제 P2b 임상 공개(5/27~30 EASL 추정), 모두가 기다리는 L/O 가이던스 달성 여부에 더 집중할 때이다.

2026년 4월 13일 | 기업분석_Update

한국항공우주 (047810)

1Q26 프리뷰: 기대치 하회. 그래도 연간 추정치 변동없음

BUY (유지)

목표주가(12M)	230,000원(유지)
현재주가(4.10)	199,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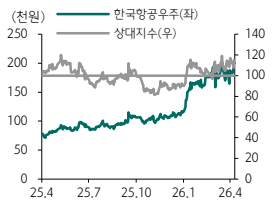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58.87
52주 최고/최저(원)	202,000/75,600
시가총액(십억원)	19,485.3
시가총액비중(%)	0.40
발행주식수(천주)	97,475.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63.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9.0
외국인지분율(%)	29.34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수출입은행	26.41
국민연금공단	8.1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633.1	6,742.5
영업이익(십억원)	488.1	671.1
순이익(십억원)	369.3	530.1
EPS(원)	3,747	5,378
BPS(원)	22,119	26,84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633.7	3,696.4	5,770.0	6,916.1
영업이익	240.7	269.2	496.5	665.5
세전이익	197.1	202.3	474.6	667.6
순이익	172.1	185.9	413.9	581.6
EPS	1,765	1,907	4,246	5,967
증감율	(23.19)	8.05	122.65	40.53
PER	31.10	59.99	47.08	33.50
PBR	3.14	6.09	8.88	7.33
EV/EBITDA	18.27	35.07	31.79	24.99
ROE	10.42	10.51	20.56	23.96
BPS	17,500	18,776	22,522	27,289
DPS	500	500	1,200	1,500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목표주가 23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국항공우주 목표주가 230,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완제기 인도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출 완제기 인도대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시점의 문제라는 점에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변동은 제한적이다. 2026년 완제기 인도 일정을 고려하면 분기별 영업이익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개선되는 계단식 흐름을 전망한다. 판관비는 연중 고르게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완제기 인도대수가 늘어나고 인도 기체의 수익성 믹스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 기준 2026년, 2027년 PER은 각각 47.1배, 33.5배이다.

1Q26 영업이익 726억원(YoY +55.0%)으로 컨센서스 하회 전망

1분기 매출액은 10,708억원으로 전년대비 5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사업부가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사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77.6% 증가할 전망이다. 1Q25 매출이 체계개발 위주로 구성됐다면 1Q26은 기존 체계개발 매출에 소형무장헬기(LAH), FA-50 상환기 등 양산 매출이 더해질 전망이다. 완제기수출 부문은 전년대비 29.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FA-50 계열 개발 매출 인식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TA-50 양산 매출이 추가될 전망이다. 기체구조물 부문은 전년대비 34.9% 성장할 전망이다. 수주잔고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영업이익은 726억원, 영업이익률은 6.8%로 각각 전년대비 55.0%, 0.1%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큰 폭의 탑라인 성장에도 영업이익률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한 이유는 전년동기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던 이라크 CLS 사업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KF-21 수출 모멘텀

KF-21의 수출 모멘텀은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1분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KF-21 도입에 대한 중동(UAE, 사우디아라비아)과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1월 말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사령관은 한국항공우주를 방문해 KF-21 개발/생산 시설을 시찰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월 UAE는 한국과 350억달러 규모 방산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정부 브리핑상 협력 범위에 첨단 항공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21 Block Ⅱ 16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약 83대의 공중전력(전투기, 경전투기)을 운용 중이나 넓은 영공에 비해 절대적인 전투기 대수가 부족하다. 이미 프랑스 4.5세대 전투기 Rafale을 도입 중(42대)이지만 기존 보유 전투기들의 전투능력(4세대)을 추가적인 4.5세대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KF-21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수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방산업종 Top Pick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유지한다.

2026년 4월 13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호텔

고유가만 해결되면 가파른 반등 전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GS피앤엘(499790)
BUY I TP 69,000원 I CP 44,750원

서부T&D(006730)
BUY I TP 21,000원 I CP 13,770원

*CP 2026년 4월 10일

한일령의 수혜는 이미 확인했다

2025년 중국인의 방일/방한 방문객은 약 900만명/550만명이나, 2026년 2월 누적으로는 각각 78만명(-54% YoY)/92만명(+31% YoY)으로 이미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3월 말부터 하계 노선 계획이 시작되면서 4월부터 더 가파른 성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쟁 이슈로 고유가에 따른 항공편 취소 및 여행 수요 위축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4~5월까지는 오히려 선 반영된 수요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고유가 장기화 시 호텔 산업의 계절성(4Q > 3Q > 2Q > 1Q)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변수가 완화된다면 1) 이미 확인된 한일령의 수혜와 2) 2분기부터 각각의 MICE 이슈 해결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가파른 주가 반등을 전망한다.

서부T&D: 1Q 예상 OP 156억원(+21% YoY)

1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604억원(+31% YoY)/156억원(+21%)으로 컨센서스(175억원)을 하회할 것이다. 호텔 부문의 예상 OCC는 60% 초반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 ADR은 18만원으로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연내 분양 예정인 용산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 공사로 2월까지 MICE 및 식음료 매출이 부진한 것이 아쉽다. 3월부터는 완전히 정상화 되었으며, 4월에는 OCC나 MICE 모두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유가 완화 시 가파른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목표주가는 유지한다.

GS피앤엘: 1Q 예상 OP 218억원(+43% YoY)

1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217억원(+29% YoY)/218억원(+43%)으로 컨센서스(201억원)을 상회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OCC는 전년 대비 부합 혹은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ADR이 5% 혹은 그 이상 상승하면서 RevPAR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특이사항으로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의 2층 연회장이 1~4월까지 25년만의 리뉴얼을 결정하면서 MICE 및 식음료 매출이 부재한 것은 아쉽지만, 4월 이후로는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단기 이슈다. 관련 이슈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영향은 약 30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마찬가지로 고유가 완화 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며 목표주가는 유지한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6년 4월 13일 | 산업분석_Update

유틸리티

2월 전력통계월보: 53개월만에 판매단가 하락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4월 10일

한국전력(051600)

BUY | TP 73,000원 | CP 43,400원

2월 전력판매량 YoY +0.2%, 전력판매금액 YoY -0.3%

2월 전력판매량은 47.1TWh로 전년대비 0.2% 증가, 전력판매금액은 8.2조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용도별 전력판매량은 주택용 +1.7%, 일반용 +4.0%, 산업용 -2.2%, 판매금액은 주택용 +3.0%, 일반용 +3.3%, 산업용 -3.1%를 기록했다. 전력판매단가는 주택용 +1.3%, 일반용 -0.7%, 산업용 -0.9%이고 평균 판매단가는 173.90원/kWh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0.4% 하락했다. 2021년 9월 이후 첫 판매단가 하락이다. 산업용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이며 4월 중순부터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 효과가 약세 요인으로 추가 반영될 전망이다.

원전 이용률 하락세 지속. 4월부터 완만한 회복 기대

2월 발전량은 45.9TWh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6.4% 감소했다. 유연탄 14.0TWh로 20.7% 증가, 원자력 12.1TWh로 25.6% 감소했다. 기저발전 비중은 56.7%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0.0%p 하락했다. 발전량으로 추정한 이용률은 원자력이 69.0%로 전년대비 23.7%p 하락, 유연탄은 54.5%로 10.4%p 상승했다. 유연탄 기여도가 원전 감소를 상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모습이다. 2월에 증가한 예방정비 원전 호기 수 대비 3월 정비 종료 호기 수가 적기 때문에 3월에도 낮은 원전 이용률이 유지될 전망이다.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0% 수준으로 추정되며 4월부터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구입전력량은 41.8TWh로 7.5% 감소, IPP+PPA는 17.5TWh로 1.9% 감소했다. 구입전력비는 5.3조원으로 10.2% 감소, IPP+PPA는 2.4조원으로 10.3% 감소했다. 구입단가는 127.99원/kWh으로 2.9% 하락했고 IPP+PPA는 135.68원/kWh으로 8.6% 하락했다. SMP와 IPP+PPA 구입단가 비율은 125.0%로 전년대비 2.4%p 하락했다.

고리 2호기 재가동 긍정적. 하반기 원가 부담 확대 경계 필요

4월 4일 고리 2호기가 가동을 재개했다. 후속 원전 3기 재가동 예상 시점은 올해 연말 2기, 2027년 1분기로 확인된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2분기부터 원전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 Mix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원가 부담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월부터 원유, 유연탄, LNG 모두 강세를 나타냈고 시차를 감안할 때 8~9월부터는 SMP가 전력판매단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시아 LNG 현물은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짧기 때문에 SMP는 여름철까지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이후 즉각적인 원자재 공급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올해 연말까지 비용 이슈가 지속될 여지도 존재한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시중금리 하락전환했지만 환율도 큰폭 하락

은행 Weekly | 2026.4.13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에 은행주는 7.7% 상승했지만 소폭 초과하락. 이전과는 달리 은행주도 지수 상승 폭을 어느정도는 쫓아가는 모습이었음

- 전주 은행주는 7.7% 상승했지만 KOSPI 상승률 9.0%에 비해서는 소폭 초과하락했다. 트럼프의 2주 휴전 선언 및 이란과의 협상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폭 상승한 가운데 이전과는 달리 은행주도 지수 상승 폭을 어느정도는 쫓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모멘텀 요인으로 작용했던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편 원/달러 환율도 큰폭 하락하면서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중동사태 협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방어적 매력 또한 계속 부각 중이다
-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보합세를 보였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이란 협상 결과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국채금리는 휴전 선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의 국채 매수 효과로 인해 추가 하락하였다
- 원/달러 환율도 휴전 선언 이후 크게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오랜만에 KOSPI를 대거 순매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결국 1,483.5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27.9원 하락했다.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를 한주간 약 5.0조원 순매수하면서 오랜만에 순매수 전환했지만 은행주는 2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1.8조원과 1,680억원 순매수했다

전주에는 업종내 주도주로 인식되던 KB와 하나금융 주가 상승 폭 컸음. iM도 상당히 선방했는데 외국인 순매수 확대에 기인

- 전주에는 KB금융과 하나금융 등 업종내 주도주로 인식되던 종목들의 주가 상승 폭이 가장 컸고, iM금융도 주가가 8.6% 상승해 선방했다
- 특히 iM금융은 금요일에만 주가가 7.0% 상승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OK그룹내에서 오케이캐피탈 보유분 288.6만주가 아프로에프엔아이대부로 넘어가면서 계열사간 시간외매매가 있었는데(계열사 전체 지분율은 변화 없음) 이는 오케이캐피탈 내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지분율 변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금요일 주가 상승은 외국인 순매수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BNK금융에도 당일 상당수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순매수는 1곳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0.5배 이하의 낮은 PBR에 매력을 느낀 롱머니일 것으로 유추한다

카카오뱅크 Analyst Day 요약. RoRWA 측면에서 자산운용 수익성 경쟁력 있으며 원화스테이블코인 사용량 증가 가능성 역설

- 우리는 지난주 카카오뱅크의 Analyst Day에 참석했다. 카카오뱅크는 비규제여신 성장과 자산운용수익 확대, M&A를 통한 inorganic 성장 등을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수익성이 대출자산의 마진보다 약 50bp 정도 낮지만 평균 위험가중치가 약 30%p나 낮기 때문에 RoRWA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조에서 주식ETF, 구조화채권 등 운용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대출 비즈니스 외에 결제·투자로의 확장을 통해 투자상품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AI를 엔진으로 퇴직연금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용처 확보를 통한 발행량 증가로 유통지원금을 증가시켜 사용량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결제수수료 및 펌뱅킹수수료 인하, 지역화폐서비스 비효율 제거, 구독결제 과금체제 개선 등의 10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에서의 비용절감 효과가 원화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카카오뱅크측은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시작 5년 경과 후에는 관련 연간 순익이 현재의 카카오뱅크 분기 순익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23일 신한을 시작으로 어닝시즌 개막. CET 1 비율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 일시적 요인으로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 4월 23일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어닝시즌이 개막한다. 1분기 실적 발표 예정일은 4월 23일(목) 2시 신한지주 4시 KB금융 5시 JB금융, 24일(금) 2시 삼성카드 3시 하나금융 4시 우리금융 5시 기업은행, 28일(화) 4시 iM금융, 30일(목) 3시 30분 BNK금융, 6일(수) 10시

카카오뱅크이다

-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ET 1 비율 하락 폭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고, 2분기에는 해외지분법주식 이익잉여금 RWA 배제 추진 등의 상승 요인도 있다. 따라서 1분기 CET 1 비율 하락이 일시적 요인일 공산이 커 이를 크게 개의치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모멘텀 약화 가능성 있지만 환율 하락이 상쇄 가능. 우리는 은행주의 중장기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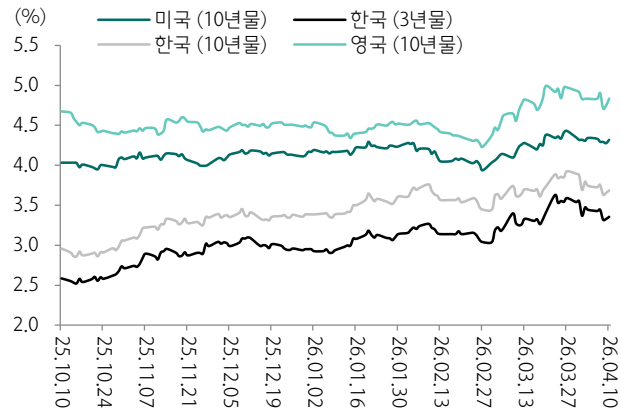
-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진전이 있을 경우 시중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그동안 모멘텀으로 작용해 왔던 요인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환율 또한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상당부분 상쇄 가능하다. 반면 중동 사태가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은행주의 방어적 매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 또한 15일에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과징금과 관련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은행주의 중장기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신뢰한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매수/TP 200,000원)과 신한지주(매수/TP 126,000원)를 제시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4월 10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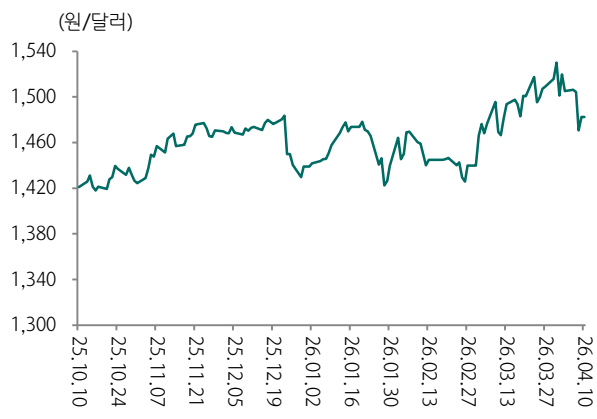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Weekly Net Buy (십억원)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0	7.9	18.9		4,825,746.5	9.0	5.9	27.7	39.0	1,818.5	-412.1	5,005.0	-9,268.6
은행	0.69	8.12	8.80	0.63	208,524.9	7.7	6.7	24.3	23.8	167.9	-50.3	-21.0	-90.8
KB 금융	0.87	9.47	9.62	0.75	59,022.2	8.8	7.4	25.0	26.9	23.2	-15.0	16.7	-36.7
신한지주	0.77	9.44	9.14	0.65	46,848.4	7.5	10.7	26.9	28.3	59.7	-8.5	-42.4	-17.6
우리금융	0.63	7.52	8.77	0.54	25,068.7	6.9	6.4	25.1	22.0	-9.0	-1.1	16.1	-6.8
하나금융	0.66	7.70	9.06	0.63	33,259.9	8.9	8.7	28.6	27.0	75.8	8.6	-41.1	-33.8
기업은행	0.47	6.41	7.49	0.54	17,822.5	4.7	-3.2	9.6	6.7	-9.9	-8.9	11.4	-1.3
BNK 금융	0.49	6.69	7.66	0.53	5,725.5	4.8	0.7	20.6	16.3	-27.1	-19.4	23.4	3.4
iM 금융	0.43	5.95	7.45	0.47	2,904.1	8.6	5.7	24.8	16.3	50.9	-2.1	5.8	-4.4
JB 금융	0.86	7.80	11.78	1.00	5,826.5	6.0	1.1	26.1	20.7	4.2	-3.8	-10.8	6.6
카카오뱅크	1.69	20.94	8.30	0.72	12,047.1	7.7	4.3	16.9	16.9	13.3	0.8	11.0	-24.2
삼성카드	0.70	9.65	7.34	2.02	6,372.2	5.6	-6.5	5.2	-1.6	-7.8	-3.7	5.7	2.2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글로벌 철강가격 강세 기조 유지 전망

철강금속 Weekly | 2026.04.13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3만원(WoW, +3.3%), 열연 수입유통가: 88만원(WoW, +1.1%), 철근 유통가: 83.5만원(WoW, +1.2%), 후판 유통가: 97만원(WoW, +1.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025달러(WoW, 0.0%), 중국 열연 유통가: 3,289위안(WoW, -0.2%), 중국 냉연 유통가: 3,765위안(WoW, -0.3%), 중국 철근 유통가: 3,219위안(WoW, 0.0%)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4.6달러(WoW, -0.9%), 한국 스크랩가: 42만원(WoW, -0.7%), 호주 원료탄(FOB): 235.8달러(WoW, -0.4%)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2,661달러(WoW, +4.2%), 아연: 3,322달러(WoW, +1.8%), 연: 1,888달러(WoW, -1.3%), 니켈: 17,041달러(WoW, +0.8%), 금: 4,762달러(WoW, +2.4%), 은: 76.5달러(WoW, +4.9%)

- 국내 철강 유통가격: 주요 제품 5주 연속 상승, 수입 감소 혹은 감산 영향으로 급격하게 타이트해진 재고가 원인
- 중국 철강 유통가격: 원재료 가격 하락과 성수기 불구, 부진한 수요로 약보합 기록
- 산업용 금속가격: 미달러 약세와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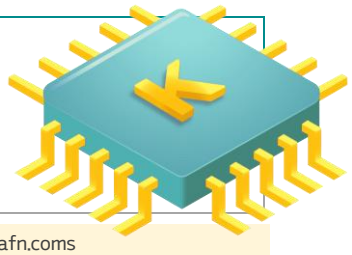
  POSCO홀딩스: 36.9만원(+6.2%), 현대제철: 4.04만원(+18.0%), 세아베스틸지주: 6.31만원(-6.2%), 고려아연: 158.1만원(+6.5%)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6.42위안(+0.3%), A. MITTAL: 52.04유로(+14.0%), NSSMC: 600.2엔(+2.6%), TATA STEEL: 206.61루피(+6.4%), NUCOR: 186.12달러(+7.9%)

- 총평: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감으로 대부분 큰 폭 상승

1분기 가격 강세 확인. 2분기도 상향 가능성 농후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4.13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s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이란 사태 휴전 및 삼성전자 호실적으로 반등

- 4월 10일 영업일 평균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6.7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DRAM은 전년 대비 287% 증가한 3.7억 달러, NAND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5,736만 달러를 기록했다. MCP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는 메모리 가격 호조 및 전년 기저로 인해 긍정적 데이터가 지속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코스피 지수는 9.0% 상승하며 3주만에 반등하며 지난 2주간의 낙폭을 만회했다. 삼성전자는 10.6%, SK하이닉스는 17.2% 상승하며 지수를 상회했다. 미국-이란 간 휴전 소식과 삼성전자의 양호한 잠정 실적이 주효했다.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이 작았는데, 이는 지난 주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별다른 이슈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상승폭을 키워준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업황 안에서 각각 HBM 경쟁력을 입증한 두 업체의 주가 방향이 상이하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 코스닥 지수도 3주만에 반등했는데, 폭은 2.8%로 코스피를 하회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이다. 하나증권 커버리지 중소형 업체들은 지수대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지난 2주간 지수대비 부진했었는데, 이를 만회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반도체 관련 서플라이체인들은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지속 추천 가능한 업종군이다. 테스의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고객사향으로 신규 공정 장비 공급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증권 커버리지 내 종목들은 대부분 신규 장비 공급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전망 및 전략: 비중확대 지속 추천. TSMC, ASML 실적 발표

- 메모리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지속 추천한다.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은 상존하지만, 업황과 메모리 가격은 하나증권의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다. B2C 업체들의 원가 부담으로 인해 현물가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모바일 상위 고객사들은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 Vera Rubin 출하 준비 과정에서 LPDDR 수급이 보다 타이트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NAND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2분기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상향에는 NAND 기여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소부장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도 지속 추천한다. P4 및 M15x의 신규 투자로 인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메모리 업체들의 1c나노 및 NAND 고단화 투자 규모가 연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 하반기 실적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다. 메모리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대외변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을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 4월 15일 밤에 노광 장비 독과점 업체 ASML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작년부터 투자를 주도하던 TSMC를 필두로 국내 메모리 양사의 신규 투자, 삼성 파운드리 및 Intel의 투자 재개 속에 2026년 장비 시장은 전년대비 23%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ASML의 수주 관련 데이터와 장비 시장 전망에 대한 상향 여부를 지켜보자.
- 16일에는 TSMC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된다. 지난 주에 3월 매출액을 공유했고, 분기 매출액은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했음을 확인했다. GPM 확인과 Capex 상향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표 1. 반도체 주요 종목 Valuation / Performance / 수급 동향

기업/지수	시가총액 (십억원)	종가/지수	주가 수익률			주간 순매수 (십억원)			PER (배)		PBR (배)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26F	27F	26F	27F
코스피	4,678,034	5,859	9.0	5.9	39.0	360.2	5,073.3	-7,748.6	7.7	6.4	1.6	1.3
코스닥	604,984	1,094	2.8	-3.9	18.2	-521.2	79.4	656.7	30.5	21.6	3.3	2.9
삼성전자	1,219,445	206,000	10.6	9.6	71.8	-1,622.3	2,563.1	-2,787.3	5.7	4.7	2.1	1.5
SK하이닉스	731,945	1,027,000	17.2	9.5	57.8	1,090.6	1,724.6	-2,785.8	4.7	3.9	2.6	1.6
주성엔지니어링	2,947	63,400	1.9	-9.4	128.9	-20.2	-7.5	27.4	34.5	20.0	4.4	3.7
피에스케이	2,364	81,600	7.4	32.7	121.1	-7.3	8.7	-1.9	21.2	17.0	3.7	3.0
피에스케이홀딩스	2,288	106,100	13.5	-7.9	129.2	9.1	-2.0	-7.2	21.9	18.3	3.9	3.3
파크시스템스	1,721	246,000	4.5	-14.1	17.7	-20.0	12.7	7.5	31.6	25.3	6.1	5.0
테스	1,597	82,500	37.7	19.9	85.2	34.8	12.6	-47.7	20.5	16.6	3.3	2.8
씨엠티엑스	1,220	127,500	8.2	-7.3	27.6	-4.6	2.8	1.6	18.2	14.0	7.0	4.8
브이엠	1,123	46,000	11.0	11.3	52.3	-10.5	18.6	-7.3	20.0	15.8	5.6	4.4
원익머트리얼즈	533	42,250	5.4	-8.0	36.7	-0.2	1.9	-1.7	9.5	8.3	0.9	0.9

자료: 하나증권

단기 불확실성이 중장기 반사수혜보다 크다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4.13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단기 불확실성이 중장기 반사수혜보다 크다

- **총평**

- WTI 96.6$/bbl(-13%), Dubai 100.9$/bbl(-12%). 정제마진 63.2$/bbl(WoW -19$) 조정. 협상 기대감 영향
- 4/12일 미국-이란 협상 불발. 호르무즈 재개방의 불확실성 상존. 글로벌 공급망 혼란 지속. 보수적 대응 필요. 추천종목 없음

- **단기 불확실성이 중장기 반사수혜보다 크다**

- **호르무즈 사태,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소재에 수혜:** 하나증권은 4/9일 "[CERAWeek 2026 참관기] Reshaping the Energy Map: 호르무즈, 그 이후"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 중장기 산업재/소재의 전방위적 수혜 가능성을 제시. 태양광+ESS, 원전/SMR 등 직관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중동 대체를 위한 원유/가스 개발 붐에 따라 알래스카/캐나다 및 브라질/가이아나/베네수엘라/서아프리카에서의 심해시추 확대 가능성. 이에 따른 상사 및 조선/건설 등의 수혜를 전망. 단기에 정상화되기 어려운 중동의 정유/석유화학 가동차질과 재고확보 및 재건 수요 감안 시 정유/석유화학 또한 중장기 수혜 가능
- **중장기 정유/석유화학 수혜 논리:** 1) 2026~27년 글로벌 정제설비 증설은 각각 인도/중국 중심 +60만b/d 가량(YoY +0.6%). 원유 소싱 이슈 등 감안 시 정상 가동 어려울 듯 2) 반면, 중동 정제설비 비중은 글로벌의 12%. 이 중 사우디는 153만b/d 가동차질(글로벌의 1.5%). UAE Ruwais 92만b/d(글로벌 1%), 바레인 Sitra 38만(0.3%), 이란 Lavan 5만(0.05%) 등 합산 시 중동의 타격 규모만 글로벌의 2.8%. 게다가, 러시아 정제설비 중 150만b/d의 드론 공격 피해도 보고. 이는 글로벌의 1.5%. 즉, 중동/러시아 설비 차질 규모만 전 세계의 4.3%. 즉, 2026~27년 글로벌 Capa는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 3) 중동의 석유화학 설비 비중은 글로벌의 16%. 중동의 주요 수출품목은 EG, PE/PP 등. 중동 내 정제설비 타격 등 감안 시 화학 설비 재가동에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 게다가 중동은 2027~29년 +20% 가량의 증설이 이란과 사우디, UAE, 카타르를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건 수요 등에 Capex 투자될 가능성 높아 글로벌 증설 부담 감소 예상 4) 재가동을 위한 외부 기술 전문가 부족 및 발전소 재가동 시의 전력망 과부하 및 물류 병목 등 감안 시 중동 지역의 정유/석유화학 완전 회복에 12~18개월 소요될 가능성 제기. Dow는 7~8개월 소요 주장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축유 방출 없이 4~5월 넘길 수 있을 가능성 언급. 글로벌 공급 차질 하에 한국업체의 원료 소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수혜 가능
-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냐:** 1) 미국-이란의 4/12일 협상 결렬.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 관련한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영향. 향후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감 유발 가능성 배제 못해 2) 유가는 현재 WTI 100$/bbl로 러우전쟁 당시 120~130$ 대비 낮은 수준. 문제는 당시보다 공급차질 규모가 크다는 점. 특히, 3) 현 상황 지속 시 글로벌 가스공급 위기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LNG는 카타르의 장기손실 규모가 17%에 이르며, 나머지 설비도 호르무즈 통행 정상화 이후 최소 1개월 이상이 요소되기 때문 4) 최근 기상예보 기관인 MetDesk는 올 여름 수퍼 엘리뇨 현상에 따른 유럽의 전례 없는 폭염 가능성 경고. 인도도 몬순에 따른 전력난 가능성이 높아 호르무즈의 정상화가 단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여름 폭염 가능성을 가스 가격은 반영하기 시작할 것 5) 한국해양진흥공사는 VLCC 왕복 항차 사이클 38~45일 감안 시 호르무즈 폐쇄 기간 40일 이상이면 반복 병목 구조로 전환되어 항만의 정상화 시간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언급. 참고로, 에버기븐(2021년) 사태 당시의 비율을 적용하면 정상화에 60~100일 소요되나 당시에는 단발 충격이며, 지금은 양방향 충격이라 더 오랜 시간 걸릴 가능성 상존

- **미국-이란 협상 결렬: 에너지 산업 Update(7)**

- 석유제품 시장: WTI 96.6$/bbl(-13%), Dubai 100.9$/bbl(-12%). 정제마진 63.2$/bb(WoW -19$) 조정. 유럽 디젤 선물 가격 WoW -5%. 협상 기대감 영향으로 전반 하락. 하지만, 4/12일 협상 불발로 다음 주 재차 유가 상승 가능성 높아
- 가스 시장: 아시아 JKM -16%, 유럽 TTF -12%. 미국 Henry Hub -5%
- 석유화학 시장: 납사 -9% vs. HDPE +8%, MEG +6%, LDPE +5%, 페놀 +4%, 부타디엔 -5%, PVC -2%. 제품 가격 혼조세

1분기 동향/ 2분기 전망 → 대형주가 좋아 보인다

음식료/담배 Weekly Comment | 2026.4.13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 주간 리뷰/전망 및 이슈 코멘트

1) 주간 리뷰 및 전망

- 전주 음식료 업종지수는 코스피 대비 -5.7%p 언더퍼폼 시현, 종전 기대감 및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기인해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코스피가 큰 폭 상승함. 음식료 섹터는 상대적으로 약세 시현.
- 섹터 내에서는, CJ제일제당이 전주에 이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줌, 메치오닌 쇼티지에 대한 반사수혜가 시장 내에서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CJ제일제당 주가를 살펴보면, 2024년 6월 이후 지속 Level-down 되었기 때문에 30만원 초반까지는 매물 저항이 제한적인 상황. 단기 주가가 예상 대비 빠르게 움직이기는 했지만 2분기 바이오 턴어라운드에 더불어 비핵심자산 유동화(ex. 영등포 제분 공장) 기대감까지 붙을 수 있어 보임.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 부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연말까지는 우상향 기조 가능성이 높아 보임.
- KT&G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중 견조한 주가 흐름 시현. 1분기 궐련 수출(+해외법인) 성장은 YoY 22%가 예상되며, 건기 부문도 설날 선물세트 반영되면서 YoY 수익성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4월부터 중동 향 수출에 대한 업데이트는 필요해 보임, '담뱃세' 인상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 만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단기 숨고르기 예상. 오리온은 연초 이후 섹터 내 아웃퍼폼 하는 주가수익률을 시현하다가 4월 들어 주춤한 모습임, 올해 본업 신규 설비 투자 및 배당 확대 기조 감안시 시장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이종산업 투자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임. 오히려, 중국에서의 고성장에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전주 상승: 대상 +6.1%(저가 매수 유입), CJ제일제당 +5.5%(바이오 턴어라운드 기대감), KT&G +5.1%(1분기 호실적 전망), 롯데웰푸드 +4.8%(저가 매수 유입), 롯데칠성 +4.1%(저가 매수 유입), 빙그레 +3.5%(저가 매수 유입), 하이트진로 +3.3%(저가 매수 유입) 등
- 전주 하락: CJ프레시웨이 -6.2%(1분기 실적 시장 기대 하회 전망) 등

2) 주간 이슈 코멘트

(1) 1분기 동향/ 2분기 전망 → 대형주가 좋아 보인다

- 대형주가 좋아 보인다. 주요 대형주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부합~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도 시장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주 **삼양식품**의 1분기 실적은 우호적인 환율 감안시, OP 1,600억원 후반~1,700억원이 가능해 보인다. 밀양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7월) 및 특근 중단(8월~) 감안시 3분기까지도 베이스효과 기인한 YoY 매출 고성장 및 이익 레버리지가 기대된다. **오리온**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부합(OP 1,540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실적이 기발표되었기 때문에 가시성은 매우 높다. 작년 2분기는 중국 내수 부진 및 배달업체 경쟁 심화 기인해 음식료 업계의 마진 축소가 불가피했다. 올해 2분기는 기저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카카오 투입 하락도 손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 강세(YoY 5%)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실적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KT&G**도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 수출+해외법인 매출액이 YoY 2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기 부문도 설날선물세트 반영 기인해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3월까지는 중동 향 수출 네가티브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4월 이후 추이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CJ제일제당**은 1분기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된다. 연결 손익을 2,560억원(컨센서스 2,78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상 대한통운 제외한 단독 영업이익은 1,470억원으로 YoY -30.4% 감소(F&C 제외한 동일한 베이스 기준)한 수치이다. 바이오 부문 적자 시현을 예상하는데, 주지하다시피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 상기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 실적 모멘텀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농심**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OP 600억원)이 예상된다. 국내 라면 매출은 전년 판가 인상을 앞둔 가수요로 YoY Flat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YoY high single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중요한 미국 매출이 YoY mid single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화 기준)되어 시장 기대 대비 약하다. 더불어, 2분기는 국내 라면 판가 인하가 반영되기 시작한다. **동원산업**은 별도(원양)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동원시스템즈 실적 부진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칠성/하이트진로는 주류 총수요 부진이 지속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1분기 주류 총수요는 YoY -mid single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칠성** 연결 손익을 310억원 내외로 시장 기대를 하회(컨센서스 360억원)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이트진로**도 고정비 부담 기인해 시장 기대(OP 560억원)를 소폭할 것으로 예상한다. **롯데웰푸드**는 원가 가중(가공버터, 유지 등)도 부담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회성비용이 2분기 반영될 공산이 커 보인다. **CJ프레시웨이**는 1분기 손익이 온라인 채널 광고비 반영 기인해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OP 108억원 VS. 컨센서스 130억원) 하겠다. 그러나, 온라인 매출이 QoQ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한다.

3) 주간 관심종목

- 오리온, 삼양식품(2분기까지 호실적 예상)

배터리 비중 확대 필요

2차전지 Weekly ⚡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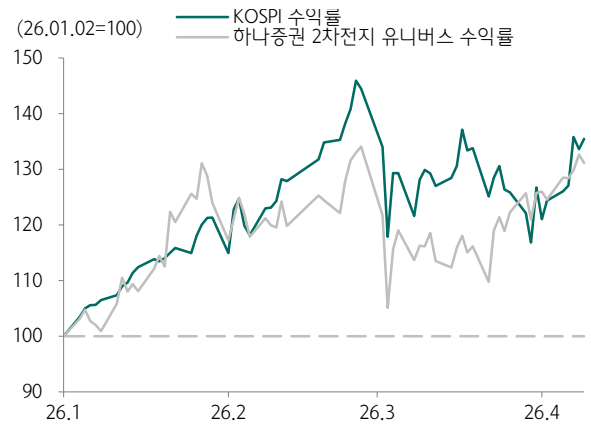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셀 메이커와 ESS 소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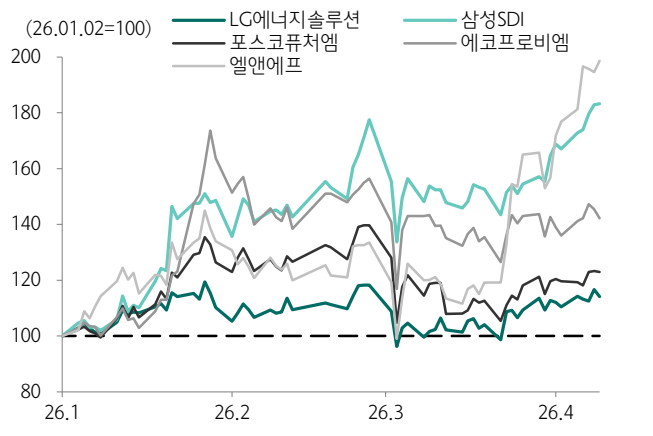
-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배터리 섹터가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흐름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최근 기관 투자자 미팅들을 통해 확인된 투자자들의 고민은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배터리 섹터를 비중을 늘릴 때, 셀과 소재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실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 현 시점에서 배터리 매수 논거는 전력망 ESS다. Grid ESS는 LFP 배터리를 요구하므로 LFP CAPA 확보가 필요한데, 소재보다는 셀 메이커들의 LFP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셀 메이커 중심의 배터리 섹터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양극재 기업들의 경우, 아직 LFP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엘앤에프만이 선제적 투자 이후 이번 하반기 중 생산 앞두고 있어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
- ESS 관련 수혜가 적어 미들 캡에서는 살만한 기업이 제한적인 가운데 스몰 캡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더블유씨피, 덕산테코피아 등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중소형주들의 특징은 ESS pure player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ESS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실적 성장이 가팔라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미국 내 한국 셀 메이커들의 ESS 생산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낙수효과 큰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필요하다.
- 한편 이번 실적 시즌에는 셀 메이커들의 영업이익 분기 흑자 전환 시기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판단한다. 여전히 분기 적자 지속되고 있으나 LGES는 2분기, 삼성SDI는 4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시장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 이 부분이 유지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유지된다면 해당 셀 메이커들에 대한 매수 및 관련 서플라이 체인 매수 논거도 확고히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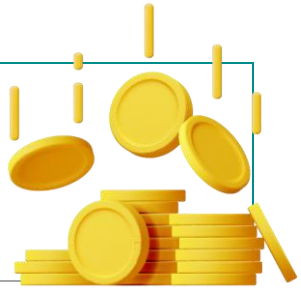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시장 상승에 동반. 아시아 제도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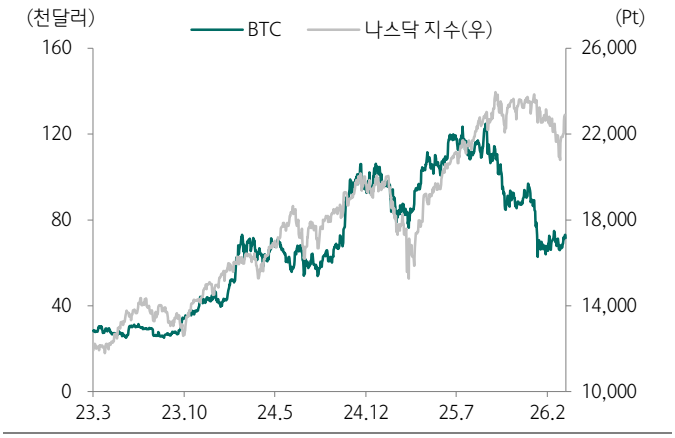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 | 2026.4.13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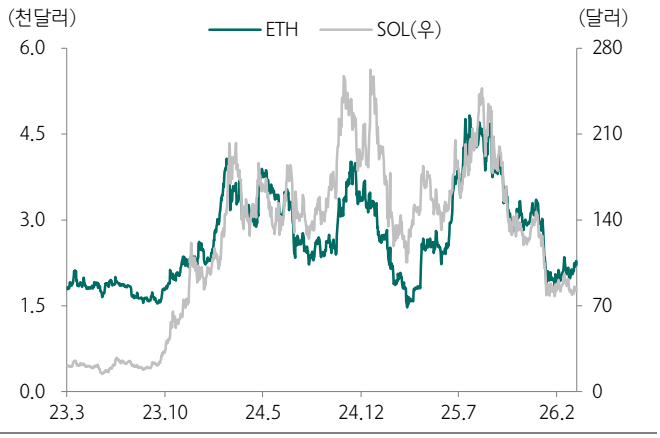
- 디지털자산 시장은 4/6~4/11 동안 나스닥 지수와 동반 상승했다. 주요 코인들의 수익률은 BTC +6.1%, ETH +8.4%, SOL +6.1%까지 기록했으나, 4/12 오전(국내 시간) 이란-미국 협상 결렬 소식에 -2% 이상 하락 반전했다. 디지털자산의 개별적인 이슈가 없었기에 매크로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전의 고립된 모습과 다르게 글로벌 자산의 상승에 동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클래리티 액트와 관련해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에서 스테이블코인 예치 수익을 금지하는 것이 은행 대출 보호에 실효가 거의 없는 반면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클래리티 액트의 심사 진행을 촉구했다. SEC, CFTC를 비롯한 개별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왔으나 실제 상품화는 하반기다. 결국 상징성을 갖춘 클래리티 액트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디지털자산이 개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 유지한다.
- 이번 주는 아시아에서 제도화의 진전이 확인됐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4월 10일 Anchorpoint Financial Limited(스탠다드차타드 홍콩·HKT·Animoca Brands 컨소시엄)와 HSBC 측에 첫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FIEA)를 통해 자금결제법에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아시아 주요 시장인 홍콩, 일본에서 디지털자산이 결제 보조수단을 넘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관찰된다.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타 국가들의 제도화는 진행 중이다. 결국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실물 경제 편입은 정해진 흐름이며 국내도 법제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는 큰 변동을 보였다. 특히 지난주 x402 재단 합류 소식을 알린 카카오페이는 +10.9%, AAIF(Agentic AI Foundation)에 합류한 다날은 +32.7% 상승했다. 국내 상장사들의 글로벌 표준 합류는 긍정적이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경제의 초입에서 특정 기업의 표준을 채택하거나 자체적으로 내재화하는 시도보다는 연합하여 범용 표준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적인 표준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글로벌 표준을 채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현실적이다.
-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4/13 한국에서 KB, 신한,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권 경영진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에는 자체 행사를 마련하여 해시드 김서준 대표와 관련 비전을 공유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USDC 유통 활성화뿐만 아니라 CCTP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기업들과의 MOU도 다수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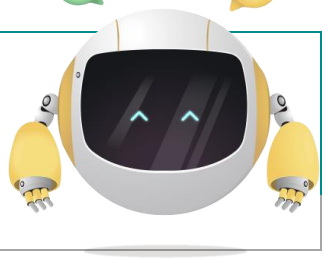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Tech&Stock Weekly

2026.04.10



Analyst 김재임_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빅테크-원전 연계 지속과 핵심광물로서 중요성 증가한 우라늄

AI&보안

앤스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PANW, CRWD 주요 파트너사로 참여

- 4월 7일 앤스로픽은 클로드 미토스를 방어 목적으로 우선 활용해 세계 핵심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취약점을 탐지, 보완하고자 주요 테크 기업 12개로 구성된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론칭
- 참여 기업이 미토스 프리뷰를 먼저 적용하고 앤스로픽이 학습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참여 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구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 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12개의 파트너사에 팔로알토(PANW)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가 포함

글로벌 에너지

[호르무즈 대란] 최상위 가치는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로. 모든 에너지원이 귀해진다

-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 도래. Energy Transition보다 'Energy Addition 혹은 Expansion'으로
- 글로벌 No.1 Electro State 중국의 에너지 자립 스토리는 대표적 케이스 vs. 글로벌 No.1 Petro State 미국의 Energy Dominance 여정 강화 예상
-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에너지원이 없다. 'All-of-the Above' 전략의 필요성 재차 강조

AI/플랫폼

알파벳(GOOGL.US): Gemini 3 기술 기반 오픈모델 Gemma 4 출시

- 구글 딥마인드가 4월 2일 자사 최강 오픈 모델 Gemma 4를 공개. Gemini 3과 동일한 연구 기반에서 파생된 네 가지 변종(E2B, E4B, 26B MoE, 31B Dense)으로 구성되며, 31B 모델은 Arena AI 텍스트 리더보드 오픈모델 3위(Elo 1452), 26B MoE는 6위를 기록

애플(AAPL.US): 에픽게임즈 분쟁을 대법원으로 재상정

-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App Store 수수료 소송에서 항소법원의 패소 판결(2025년 12월)에 대한 재심리 요청마저 2026년 3월 기각당하자, 미 연방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계획을 밝힘

메타(META.US): 메타·구글, Section 230 우회 소송 잇따른 패소

- 1996년 제정된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은 플랫폼이 제3자 콘텐츠에 대해 퍼블리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온 미국 인터넷 산업의 핵심 법적 방패. 하지만 최근 LA 주법원 배심 평결에서 메타와 구글(유튜브)이 잇따라 패소하며 이 방패에 실질적 균열이 발생

오픈AI(비상장): 오픈AI·앤스로픽·구글, 중국의 AI 모델 무단 복제에 업계 공동 대응 착수

- 오픈AI, 앤스로픽, 구글이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설립한 비영리기구 Frontier Model Forum을 통해 중국 AI 기업들의 adversarial distillation(적대적 증류) 공격에 대한 위협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

앤스로픽(비상장): Claude Code 구독자의 OpenClaw 등 서드파티 도구 사용에 별도 과금 전환

- 앤스로픽이 4월 4일부터 Claude Code 구독자가 OpenClaw 등 서드파티 harness를 통해 사용하는 분량을 기존 구독 한도에서 분리하고, pay-as-you-go 방식으로 별도 과금하기 시작

상위 AI 모델, 성능/사용량 기반으로 수익화 시작

Hana China Weekly | 2026.4.10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Zhipu AI(2513.HK): GLM 모델 가격 10% 인상

- 4/8 Zhipu AI는 차세대 오픈소스 플래그십 모델 GLM-5.1을 공식 출시하고, OpenRouter 기준 GLM 모델 가격을 추가로 10% 인상. GLM-5.1은 장시간 에이전트형 작업 수행 능력과 코딩 성능 개선을 강조했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중국 AI 업체들의 상용화·수익화 전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
- 이번 가격 인상은 중국 AI 업체들이 기존 '저가·점유율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모델 성능 고도화 기반의 가격 정상화 및 수익화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 특히 핵심 코딩 시나리오 가격이 글로벌 선두 업체 대비 빠르게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 서비스 경쟁 축이 단순 트래픽·사용량 확대에서 성능 기반 ASP 상승 및 유닛 이코노믹스(UE)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판단.

샤오펑(9868.HK): 저가 전기차 시장 철수 공식화

- 4/6 샤오펑은 10만 위안 이하 저가 EV 시장에서 철수 방침을 공식화하며 가격 경쟁 중심 산업 구조에서 기술 중심 경쟁으로의 전환을 선언. 허샤오펑 CEO는 저가 차량 생산은 의미 없다고 밝히며,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이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 최근 출시한 신차 라인업은 가격 인하 대신 최대 1,500 TOPS 수준의 자체 AI 칩 및 자율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가격대는 11.98만~15.18만 위안으로 설정. 동시에 샤오펑은 사명을 샤오펑자동차에서 샤오펑그룹으로 변경하며 단순 OEM에서 벗어나 AI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전기차를 기반으로 'Physical AI' 영역 확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

CXMT(비상장):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로 향후 메모리 초과 공급 초래 가능성 제기

- 모건스탠리는 CXMT가 약 295억 위안 규모 자금 조달을 목표로 상하이 STAR 마켓 IPO를 추진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해당 증설이 글로벌 메모리 업사이클 후반부와 맞물릴 경우 공급 측면에서 수요 대비 균형 상태를 넘어 초과 공급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CXMT는 DDR4 등 범용 DRAM 중심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약 5%(YoY +2%p), 가동률은 94.6%까지 상승한 상황.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급락보다는 상승률 둔화가 핵심 시나리오로 제시되며, 이는 고객사의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 약화와 ASP 상승 탄력 둔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이익 성장 모멘텀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13	206,000	신규	-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신규	-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SDI (006400.KS)	4/13	481,000	신규	-	•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으로 보유 지분 전량 현금화 시 최대 11조원 유입 가능 • 현금 유입으로 유동 비율 1 회복 및 FCF의 플러스 전환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신규	-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4/13	106,800	신규	-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동국제강 (460860.KS)	4/13	10,410	신규	-	•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철근시장 개선에 따른 봉형강 수익성 개선 기대 • 중국산 후판 수입 규제에 따른 판매 확대와 후판 ASP 인상 기대
KSS해운 (044450.KS)	4/13	12,640	신규	-	• 장기운송계약 기반 매출 비중이 높아 운임 변동성 대비 이익 가시성 높아 • 계약 갱신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이 확고해진 상황에서의 보다 제고된 주주환원 기대
리노공업 (058470.KQ)	4/13	111,800	신규	-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대성하이텍 (129920.KQ)	4/13	11,000	신규	-	• 21년 이후 다수의 이스라엘 기업으로 방산 정밀 부품을 공급 •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수요 및 재고 확충 필요성 확대로 기존 대비 수요 확대 기대
우리넷 (115440.KQ)	4/13	13,000	신규	-	• 과기부 주도로 5G-SA 망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백본망 전송장비 구축 수요 발생 전망 • 피지컬 AI로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전송망 장비 신규/교체 수요 성장 예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24%	-3.60%p	+60.04%	+22.8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신규	-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신규	-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신규	-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06,000	23.2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412,000	4.44%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0,200	9.15%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8,300	11.56%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을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9,000	10.98%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99,900	21.37%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75,200	5.17%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53,000	10.35%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80,000	29.47%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9.05%	-6.49%p	+32.46%	-4.7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최종) (E--/--, 1월 -2.1%/0.3%) ▪ 중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전년동월대비) (E $111b/13%/15% 2월 $90.98b/39.6%/13.8%) ▪ 미국 3월 전월대비 PPI 최종수요 (E--, 2월 0.7%)	▪ 한국 3월 실업률(계절조정) (E--, 2월 2.9%)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핵심기계수주 (E --/--, 1월 -5.5%/13.7%)	▪ 중국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최종) (E --/--, 1.2%/2.5%) ▪ 미국 4월 2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미국 3월 소매판매 (E 1.40%, 2월 0.60%)	▪ 한국 3월 PPI(전년비) (E--, 2월 2.40%) ▪ 일본 3월 무역수지 (E--, 2월 ¥57.3B)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속보치) (E--, 3월 -16.3)	▪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잠정치) (E --/--, 이전치 -0.2%/1.60%) ▪ 미국 4월 3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일본 3월 전년비 CPI (E--, 이전치 1.60%) ▪ 미국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E--)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